

# 1960, 1970년대 한국 무용교육 제도의 근대적 이행\*

개인무용연구소에서 대학 무용과로

윤지현\*\*

I. 들어가며	IV. 나오며
II. 무용인 구술채록문에 대한 담론연구	참고문헌
III. 1960, 1970년대 무용교육제도의 근대적 이행과 담론경쟁	Abstract

## I. 들어가며

한국의 무용교육과 무용공연 생산의 중심이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개인무용연구소에서 대학 무용과로 이행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학 무용과의 설립과 확산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무용교육기관의 하나인 개인무용연구소의 영향력과 역할은 퇴조했고, 그 기능과 권위는 대학 무용과로 이행했다. 이에 대해 사적인 행위자 관계와 도제적 교육방식에 기초한 개인무용연구소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무용교육과 효율적인 무용인 양성이 가능한 대학 무용과로 대체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곧 ‘전근대적’ 개인무용연구소에서 ‘근대적’ 대학 무용과로 무용교육이 근대화되었다는 것이다.

과연 한국의 무용교육제도는 근대적 이행에 성공했는가? 1960년대 초 대학 무용과의 개설과 국립무용단체의 창단, 문화제제도의 도입 등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무용분야의 근대적 제도들이 시행되었다. 이미 정착되어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들 제도를 상기한다면, 무용교육제도의 근대적 이행 여부를 묻는 모두의 질문은 때늦은 감이 있다. 근대적 무용교육제도가 오래 전 정비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용계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행위자 관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때 이를 ‘전근대적’이라 규정하고 있음을 떠올린다면, 이 질문은 유효해진다. 근대적 무용교육제도의 정착이 실재가 아니라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근대화’<sup>1)</sup>의 이념적 효과에 지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60, 1970년대 개인무용연구소에서 대학 무용과로 무용교육제도의 이행을 전근대와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7042248).

\*\*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jhydance@gmail.com

1) 본 글에서 근대화는 근대성의 증가, 곧 합리성, 표준화의 정도, 전문화 및 분화의 확대 과정으로 풀이한다. 이를 무용교육에 적용한다면 무용공연과 장르의 분화, 교육과정의 체계화 및 전문화, 실기와 이론의 분화에 따른 무용교육기관의 역할과 기능분화 및 전문화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근대제도의 경합으로 인식하는 현상과 이에 내재된 근대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다. 무용인 구술(Oral History) 채록문에 대한 담론분석을 통해 이 시기 무용교육제도를 둘러싼 담론을 관찰하고자 한다. 비판적 언어연구자 페어클로우(N. Fairclough)<sup>2)</sup>의 비판적 담론분석법(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틀을 빌려 근대 교육제도의 이행과정을 둘러싼 담론을 구성할 것이다. 이어 담론에 내재된 ‘전근대와 근대’라는 대립프레임에 은폐된 ‘근대화’의 이데올로기적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무용교육제도의 이행을 근대성의 확대라는 믿음으로 환치해온 한국 무용계에 대한 성찰적 이해를 모색하고자 한다.

무용인의 구술증언은, 제도적 이행기의 신제도인 대학 무용과가 기존 제도인 개인무용연구소와 어떻게 경합했는지, ‘전근대와 근대’의 대립프레임 속에서 어떻게 주도권을 장악하거나 퇴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구술에 참여한 무용인들은 당대 무용교육의 주체로서 제도이행과정을 주도했거나, 가까이에서 목격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무용인 구술채록문 텍스트를 분석대상으로 수집해 페어클로우의 담론분석틀을 적용해 분석할 것이다. 무용교육제도와 관련하여 개인무용연구소와 대학 무용과의 지지담론이 텍스트 자체의 미시적 수준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고, 이어 거시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실천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관찰할 것이다.

## II. 무용인 구술채록문에 대한 담론연구

### 1. 담론분석의 텍스트로서 무용인 구술채록문

본 연구는 약 반세기 전 대학 무용과의 정착에 따른 무용가들의 행위 및 태도에 주목하고, 관련 경험을 기억 및 증언했던 무용인의 구술채록문을 분석한다. 무용인 구술채록문은 당대 무용인들의 다양한 이해와 대응 경험을 관찰할 수 있는 사료이다. 기존 문헌자료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무용현장과 그 시간 및 공간에 속했던 행위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기억이 담겨있다. 무용사 사건과 개별 무용가의 행위와 선택 등 과거의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한 오늘의 해석은 제도이행기 무용사의 다양한 단면을 관찰하게 한다.

구술채록문은 개인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기억과 부정확한 진술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를 무용사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한국근현대무용사의 역사적 공백기라 할 1960, 1970년대의 사료부족과 무용사 연구의 필요성에 대면하면 무용인 구술채록문은 ‘취급상 주의’에 대한 부담보다는 풍요로운 자료로서의 매력이 더 크다. 구술채록문을 사료로 활용하는 데에 제기되는 한계의 핵심은 구술자의 기억이 특정 시기나 사건 등 ‘과거 사실에 대한 그대로의 반영이 아니라 구술자의 현재적 입장을 반영한 결과’<sup>3)</sup>라는 점에 있다.

1960, 1970년대 한국 사회의 ‘근대화’ 실천 속에서 무용교육 분야는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 무용과를 설립하고 확대했다. 무용계 구성원의 새 제도의 수용 태도와 입장은 당시에,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는 현재에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무용교육제도의 이행과정에서 무용인 각자가 처했던 위치나 이해

2) 페어클로우(N. Fairclough, 1941-)는 언어학자이며, 영국 랭카스터대학 명예교수이다. 사회언어학을 응용한 비판적 담론분석의 기초를 닦았다. 권력이 언어를 통해 작동하는 방식을 다룬 비판적 담론분석과 관련하여 *Language and Power*(1989)를 비롯한 다수 저서와 논문이 있다.

3) 윤택림(1994), 기억에서 역사로—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5, p. 277.

관계에 따라 그 경험과 기억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구술채록문의 사료로서의 유용성은 기억된 사실 자체보다는 그 기억이 ‘무엇을 말하려는가’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가’를 추적할 때 드러나게 된다. 이는 구술채록문 분석으로 한국근현대무용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구술채록문에 제시된 표면적 사실의 정리나 요약 등 단순한 조합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보다는 구술된 사실의 이면에 작동했던, 그리고 당시 한국사회를 관통하던 시대사적 조류 또는 사회를 지배하던 이념과 권력의 작용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구술채록문에 서술된 사실 이면의 의미와 작용을 찾는 분석방법으로 페어클로우의 비판적 담론분석법을 빌렸다. 구술채록문은 비판적 담론분석의 대상으로서 적절한 텍스트이다. 첫째 발화된 언어로서 분석이 가능한 텍스트라는 점, 둘째 구술자가 처한 위치와 관계에 따른 의도와 전략의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 셋째 구술채록문 생산과 분배과정에 다양한 사람이 참여한다는 점 때문이다. 근현대 무용사 연구는 물론 현재 한국무용장의 이해관계와 그 구성에 작동하는 영향관계를 관찰할 수 있는 사료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이 주관해온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이 생산한 무용분야 구술채록문을 분석대상 텍스트로 수집했다. 무용분야의 경우 200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총 74명의 무용계 인물에 대한 구술채록을 실시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sup>4)</sup> 주제사 연구로 2008년과 2009년 “한국 근현대 무용교육과 무용창작”, 2015년 “20세기 후반 참여지향의 춤 흐름 재발견”을 수행했다. 구술채록문은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을 통해 제한적, 부분적으로 공개 서비스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열람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예술자료원의 디지털아카이브<sup>5)</sup>는 구술채록회원에게 온라인으로 공개서비스하고 있다. 디지털아카이브에서 서비스되는 무용 분야 구술채록문은, 35명의 생애사와 주제사이며, 이 중 일부는 구술채록문의 소재목 목차만이 제공된다.

## 2. 비판적 담론분석들의 응용

구술채록문의 분석에는, ‘담론은 사회적인 것’이라는 페어클로우의 비판적 담론분석법의 분석틀을 응용했다. 페어클로우는 일상적 언어사용을 분석하여 사회적 구조와 현실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6)</sup> 페어클로우를 비롯한 비판적 담론분석 연구자들은 담론을 현실사회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영역으로 확장했다. 사람들의 언어 사용은 객관적 사실의 재현이기보다는 믿음과 바람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이라는 것이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의미를 생산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통제하고, 구체적 맥락 속에서 사회적 의미를 발생하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징권력’<sup>7)</sup>의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언어의 이러한 특성에 대한 이해는 사회의 본질과 구조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된다.<sup>8)</sup>

4) ‘무용교육제도의 근대적 이행’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2008년과 2009년 수행된 주제사 연구의 성과물을 주목하게 된다. 2008년 생애사 4명, 주제사 21명, 2009년 생애사 1명, 주제사 22명의 무용인 구술채록이 이뤄졌다. 한국예술디지털 아카이브 구술채록 <[http://www.daarts.or.kr/intro/gusool\\_intro.jsp](http://www.daarts.or.kr/intro/gusool_intro.jsp), 2017. 11. 5.>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한국예술디지털 아카이브 구술채록 <<http://www.daarts.or.kr/gusool-artist>, 2016. 1. 10. ~ 2017. 10. 20.>

6) N. Fairclough(1995),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Critical Study of Language*, (Essex: Longman).

7) P. Bourdieu(1991), 『언어와 상징권력』, 김현경(역)(서울: 나남, 2014)

8) N. Fairclough, R. Wodak(1997), *Critical Discourse Analysis, Discourse as Social Interaction*, Dijk, T. A. V.(Ed)(London: SAGE, 1997), pp.258-284.

페어클로우는 담론을 사회적 행위의 한 형태로 이해했다. 그는 언어의 사용을 사회적 행위로 보았는데 텍스트의 형태로 지배관계와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언어를 권력관계와 이해관계 속에 놓음으로써 사회적인 것과 연결시킨다.<sup>9)</sup> 다이크(Dijk, T. A. V.)도 담론을 사회적 실천으로 보고,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 배치했다.<sup>10)</sup> 그는 담론을 통해 재현된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비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담론분석을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보다과 메이어(Wodak, R. & Meyer, M.) 또한 비판적 담론분석의 목표를 이데올로기와 권력의 탈신비화로 규정했다.<sup>11)</sup>

페어클로우는 비판적 담론분석과 관련하여 담론과 사회변동 사이의 관계에 주목했다. 텍스트와 사회적 실천을 연결하려 했다. 페어클로우의 비판적 담론분석법은 담론분석의 대상을 언어와 어휘 분석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text)와 담론적 실천(discourse practice), 사회적 실천(sociocultural practice) 등 세 차원에서 분석한다.<sup>12)</sup> 이를 통해 담론분석의 사회적 성격을 분명히 하는데 세 차원에 각기 분석틀을 적용하여 텍스트 분석과 과정분석, 사회문화적 실천분석을 제시한다. 그의 담론분석은 텍스트를 묘사하고, 텍스트가 생산, 분배, 소비되는 과정을 해석하고, 담론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3)</sup>

텍스트 분석의 차원에서는 텍스트 생산자가 텍스트 생산과정에서 취한 선택들을 분석한다. 텍스트의 제목이나 주제, 화제 등 텍스트의 형식을 분석하거나 문장이나 단락을 단위로 그 속에 특정 어휘의 선택과 용어 사용에 주목해 전달하려는 의도를 파악하기도 한다. 구술채록문의 텍스트를 생산했던 무용가들은 텍스트 생산과정인 구술 상황에서 어휘와 문법, 절과 문장의 구성 등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으로 무용인 구술자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 이해관계, 목적에 따라 현실 또는 기억을 구성하게 되는데 텍스트 분석은 이를 묘사하게 된다. 텍스트의 전제와 어휘, 문법, 응집과 텍스트 구조의 분석을 통해 경험한 사건과 관계, 상황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구술자 자신에게 어떤 정체성이 부여되며 다른 이들과는 어떤 관계가 설정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담론적 실천의 분석은 담론의 생산과정에 이용된 텍스트와 생산된 텍스트에 대한 반응, 텍스트 생산 주체에 대한 분석이다. 텍스트가 생산되고 분배, 소비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 텍스트와 담론에 관련된 주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추적한다. 사회적 실천의 분석은 담론이 발생한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밝힌다.

### 3. 담론분석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일상의 언어를 사회적 정치적 행위로 보았던 페어클로우의 비판적 담론분석의 관점을 수용했으며, 그가 제안했던 담론분석의 세 차원인 텍스트실천,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의 분석틀을 차용하고자 했다. 비판적 담론분석법은, 분석대상 텍스트의 종류와 텍스트가 다룬 사안과 형식이 광범위함에 따라 분석방법 또한 다양하다. 문자 텍스트에서 시각 및 청각 텍스트와 영상까지 다양한 형태가 분석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치적 사회적 의제에서부터 역사적 문화적 경험까지 다양한 사안이 분석될 수 있다. 또한 그 형식도 언론보도에서부터 공적 문서, 심층 인터뷰 등까지 그리고 본문을 포함한 텍스트 전

9) N. Fairclough(2001), *Language and Power*(2nd edition)(London: Longman).

10) T. A. V. Dijk(1993), Principle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Discourse & Society*, 4, pp.249-283.

11) R. Wodak, M. Meyer(2001),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London: SAGE).

12) N. Fairclough(1995), 『대중매체 담화 분석』, 이원표(역)(서울: 한국문화사,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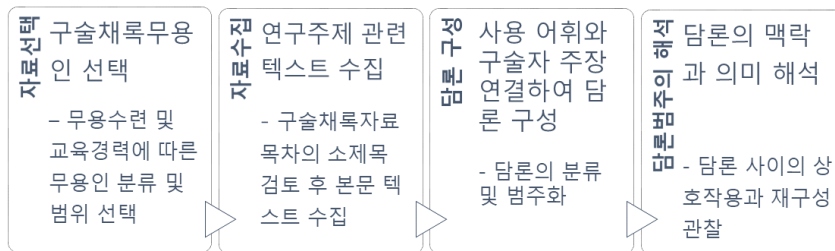
13) ibid.

체에서부터 텍스트의 일부인 제목이나 주제어, 문법까지 분석대상의 성격과 형식에 따라 다양한 분석법이 활용된다. 비판적 담론분석법의 연구절차는 고정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담론분석법의 설계 및 절차적 수행방식에서 비판적 담론분석의 분석틀을 부분적, 제한적으로 차용했음을 밝힌다.

본 연구의 담론 분석은, 담론분석의 일반적 절차에 근거해 자료를 수집, 분류, 범주화하고 범주에 대한 해석 실행을 통해 진행했다. 먼저 자료의 선택을 위해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분석대상 텍스트의 범위를 제한했다. 구술채록문은 개인사적 텍스트를 포함한 방대한 자료이다. 이에 본 연구와 관련하여 분석대상 자료의 범위 제한이 필요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무용분야 구술채록자료에서 사례, 곧 무용인을 제한했다. 구술채록자료에 소개된 무용인의 상세약력을 참고하여 무용 수련 및 교육경력에 따른 4개의 범주를 설정했으며, 각 범주의 고른 안배를 고려해 12인의 무용인을 선정하고 분류했다<sup>14)</sup>.

동시에 이들 무용인의 구술채록자료도 연구주제와의 관련성에 따라 텍스트 범위를 제한했다. 12인이 생산한 구술채록자료 중 연구주제를 언급한 텍스트만을 분석대상으로 수집했다. 이를 위해 무용인의 구술채록자료의 목차를 검토했다. 연구주제인 무용교육제도와 관련된 주제어를 정하고, 목차에서 주제어를 포함한 장을 분류했다. 목차의 소제목 분류에 사용한 주제어는 “무용연구소, 대학교육, 대학 무용과, 사사, 훈련, 도제” 등이다. 주제어를 포함한 소제목의 해당 본문을 분석대상 텍스트로 1차 수집했다. 그리고 소제목에 이들 주제어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라도 구술자의 무용연구소나 대학 무용과에서의 수련 과정 또는 교육 경험을 담은 장을 2차로 분석대상 텍스트에 포함했다.

텍스트 분석에서는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와 어휘, 이들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 텍스트 표면상 제시되거나 내포된 무용인의 주장에 유의하여 텍스트를 검토했다. 텍스트의 요지에 따라 무용인의 주장문을 구성하여 이를 토대로 담론을 구성했다. 담론의 구성은 무용교육의 근대적 이행과정에서 신구제도에 대한 경험의 묘사, 입장, 평가 등 무용인의 주장을 토대로 했다. 구성된 담론을 분류하고 범주화했으며, 개인무용연구소에 대한 지지측 담론과 대학 무용과에 대한 지지측 담론으로 확인하고 재분류했다. 이어 각 담론의 맥락과 의미를 해석하고, 담론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담론적 실천으로서 담론의 재구성 과정에 접근했다. 또한 당대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권력과 이념과의 관련성을 따져 사회적 실천을 분석했다. 무용인 구술채록에 묘사된 1960, 1970년대 무용교육제도의 이행 경험이 당시 ‘근대화’라는 한국사회의 거시적 지향과 실천의 사례임을 살펴보았다.



〈그림 1〉분석방법 및 절차

14) 무용수련 및 무용교육 경력에 따라 분류한 무용인의 4범주를 고려하여 분석대상을 수집했다. 무용교육제도에 대한 범주별 입장과 담론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분석대상 텍스트의 생산자인 무용가 경력의 차이를 고려했다. 무용인의 경력에 따른 범주분류는 다음 장(III-1-나)에 기술했다.

### III. 1960, 1970년대 무용교육제도의 근대적 이행과 담론경쟁

#### 1. 개인무용연구소에서 대학 무용과로

##### 가. 구술채록문에 언급된 무용교육 현황

무용교육제도의 변화와 이를 둘러싼 담론에 접근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춰 당대 무용교육 현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무용인 구술채록문에 제시된 정보에 기초하여 1960, 1970년대 무용교육의 상황을 가늠하는 현황자료를 정리했다.

〈표 1〉<sup>15)</sup>은 무용분야 구술채록문에 언급된 개인무용연구소와 대학무용과 개설 현황을 작성한 것이다. 이 표는 1945년 이후부터 2000년 이전까지 개인무용연구소와 대학 무용과 개설 현황을 연대순으로 구성한 것이다. 무용인 구술사 연구에 참여한 무용가의 구술증언에 언급된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당시의 전체 무용교육기관 현황은 아니다. 또한 1980년대 이후의 대학 무용과 개설 관련 자료는 각 대학 무용과 홈페이지 연혁자료를 참고했다. 이에 무용인 구술채록문에 언급되지 않은 기관이나 대학 무용과 개설 현황과 관련하여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는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제한적 의미만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표 1〉의 개인무용연구소 개소와 대학무용과의 설립의 연도별 수량현황과 추이는, 무용교육 및 무용공연 제작의 중심이 이행됨을 보여준다.

〈표 1〉 1960, 1970년대 개인무용연구소와 대학 무용과 개설 현황(연대순)

구 분	개인무용연구소	대학 무용과
1940년대	7	
1950년대	15	2
1960년대	10	4
1970년대	4	4
1980년대		8
1990년대 이후		9

개인무용연구소는 1950년대 이전부터 여러 무용가에 의해 개설되어 무용가 양성과 무용공연 제작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대학 무용과는 1960년대 초반 이후에 설립되기 시작했다. 1950년대 현 경기대인 조양보육초급대학에 교육무용과 현 중앙대인 서라벌예술대학에 체육무용과 등이 설립됨으로써 대학 무용과의 개설을 통한 근대 무용교육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보여준다. 독립적인 무용과의 개설은 1963년 이화여대 체육대학에 설립된 무용과로부터 본격화되었다. 1960년대 한양대, 경희대, 현 세종대인 수도여사대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1970년대 부산여대, 조선대 등에 설립된다. 그러나 대학 무용과의 설립은 1980, 90년대까지 이어져 전국 각 대학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반면 무용가의 명망에 기반을 두고 무용가 양성과 무용공연 제작을 담당해오던 개인무용연구소의 개소는 1970년대 후반 주춤해지기

15) 〈표 1〉은 무용인 구술채록문에 언급된 개인무용연구소들을 설립연도순으로 표로 작성한 뒤 연도별 개설수량만을 취한 표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2003~2011),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무용분야 구술채록 자료집.

시작해 1980년 이후 감소했다. 대신 대학 무용과 진학을 보조하는 무용학원이 대학 무용과의 배후에서 무용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 나. 구술채록 무용인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구술채록문 텍스트의 이항대립적 분석으로 담론 구성을 시도했다. 기호학에서는 의미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방식의 하나로 이항대립을 설명한다. 이항대립이란, ‘하나의 항이나 기호가 자신과 상호배제적인 다른 항에 근거해 의미를 발생’<sup>16)</sup>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항대립분석방법은 모든 텍스트의 심층구조의 기본이 이항대립이라고 전제하고, 텍스트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 숨어 있는 대립개념을 찾아내어 공시적(cynchronic)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sup>17)</sup> 본 연구에서는 무용인 구술채록문을, 당시 개인무용연구소의 장점을 부각하려는 측이 생산한 텍스트와 대학 무용과를 지지하는 측이 생산한 것으로 구분하고, 대립프레임을 도출하려 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수입된 구술채록문 텍스트의 발화자인 12인의 무용인들을 수련 및 교육경력에 따라 4개의 범주로 분류했다. 예술자료를 발간한 무용인 구술채록 자료집에는 무용인의 상세 약력이 작성되어 있다. 제공된 약력을 검토하여 무용인의 수련 및 경력에 따라 12인을 선정했으며, 이들을 4개의 범주로 분류했다. <표 2>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sup>18)</sup>. 먼저 무용수련 경력에 따라 개인무용연구소 출신의 무용가와 대학 무용과 출신의 무용가로 나누고, 다시 무용교육자로서의 경력에 따라 무용연구소 및 무용학원을 운영하는 무용가와 대학 무용과 교수인 무용가로 나눴다. 이를 합쳐 무용연구소 출신의 무용연구소 운영 무용가, 무용연구소 출신의 대학 무용과 교수인 무용가, 대학 무용과 출신의 무용연구소(또는 학원) 운영 무용가, 대학 무용과 출신의 대학 무용과 교수인 무용가 등 4범주 중 하나로 분류했다.

제도가 정착하는 과도기적 상황을 반영하듯 개인무용연구소 수련과 대학 무용과를 병행하여 수련했던 무용가들이 많았다. 이밖에도 대학의 무용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무용은 개인 무용연구소를 통해 수련한 무용가도 있다. 본 연구는 무용교육의 제도변화에 집중하기 위해 이들 무용가의 수련 및 경력을 단순화하여 분류했다. 곧 수련경력 구분의 경우는 무용 수련에 한하는 것으로, 개인의 대학학위 취득 여부나 전공과는 관련이 없다. 즉 개인무용연구소 수련과 대학 무용과 학위과정을 병행한 경우는 대학 무용과 출신으로 분류했으며, 반면에 대학에서 다른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했다고 해도 무용 전공 학위가 아니라면 무용수련 경력은 무용연구소 출신으로 분류했다.

①번 범주는 개인무용연구소 출신으로 개인무용연구소에서의 무용교육과 창작활동을 지속했던 이들이다. 이매방을 비롯한 이 범주의 무용가 상당수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예술원회원 선출, 국립무용단장 역임 등 무용계의 상층을 점했고, 예술가로서 사회적 승인을 획득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대학으로 활동공간을 옮긴 무용가에 대해 소외감을 표현하곤 했다.<sup>19)</sup> ②번 범주는 대학 무용과 출신

16) 김영옥, 함승경(2014), 금연과 흡연의 담론 경쟁- 비판적 담론분석(CDA)의 적용, 『한국언론학보』 58(5), p.343.

17) 김경용(1994),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기호의 우리, 우리의 기호』(서울: 민음사).

18) 수집된 구술채록문의 발화자인 12인의 무용인을 <표 2>의 기준으로 분류했다. 범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범주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무용인의 이름을 사례로 표기했으며, 텍스트 분석대상이 된 구술채록문의 발화자들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지는 않았다.

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인 구술대상자 선정은 사회적 승인을 확보했던 무용인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이들은 모두 한국 무용계의 성공한 예술가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외감의 표현’이란 상대적 의미이며, 대학교수 임용이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성공으로, 개인무용연구소 운영이나 독립무용가 활동을 실패로 보는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

〈표 2〉 무용수련과 무용교육자 경력에 따른 무용인 분류

수련 및 경력	개인무용연구소 수련	대학 무용과 수련
개인무용연구소 운영	① 개인무용연구소 출신으로 개인무용연구소(학원) 운영 (예) 이매방	② 대학무용과 출신으로 개인무용연구소(학원) 운영 (대학 출신 무용가의 증가에 따라 다수가 이에 해당)
대학 무용과 교수 경력	③ 개인무용연구소 출신으로 대학무용과 교수 경력 (예) 송범	④ 대학 무용과 출신으로 대학 무용과 교수 경력 (예) 육완순

으로 무용연구소 혹은 무용학원을 운영하는 무용가들이다. 대학의 무용교육이 정착되고,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인력이 증가하면서 확대된 범주이다. ③번 범주는 송범 등이 속한 범주로, 개인무용연구소 출신으로 대학 무용과 교수로 임용된 무용가들이 속한다. 이들은 1960년대 대학 무용과의 도입 초기 이미 무용계의 영향력 있는 활동가들이었으며, 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개인무용연구소에서 대학 무용과로 무용교육의 공간을 옮겼고, 새로운 제도 속에서 무용계의 상층을 선점했다. ④번 범주는 대학 무용과를 통해 배출되어 대학 무용과 교수로 임용 및 활동을 해온 무용가들이다. 육완순 등을 사례로 언급할 수 있는데 동시기 개인무용연구소에서 활동을 지속했던 무용가들에 비해 무용가 양성과 무용창작에 미친 영향과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무용가 12인의 분석대상 구술채록문 텍스트 중 6개를 ①번과 ②번 범주의 개인무용연구소 지지층으로, 다른 6개는 ③번과 ④번 범주의 대학 무용과 지지층으로 분류했다. 이들 텍스트의 대립되는 입장은 담론의 이항대립분석에 반영했다. 무용교육제도의 정착과정에 대한 기억과 증언에서 무용가들이 무용교육제도에 대해 취한 입장은, 수련과정 및 경력과 영향관계가 있어 보인다. 수련과정보다는 대학교수로서의 경력이, 무용교육의 효율성과 관련한 지지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학 무용과의 우위를 지지하는 태도는 대학교수 경력 여부에 따라 다른 경향성을 띠었기 때문이다. 대학교수로서의 경력은 무용가로서 높은 사회적 승인을 확보하게 하고, 무용가의 지위 인식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 2. 한국 무용교육의 근대성 담론

### 가. 텍스트 실천

무용인 구술채록문 텍스트 분석을 위해 개인무용연구소와 대학 무용과에 관련된 텍스트에서 각기 빈번하게 사용된 어휘를 수집하고 어휘의 사용례를 분석했다. 개인무용연구소 지지층과 대학 무용과 지지층 양측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어휘의 종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무용교육제도의 이행과정과 관련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어휘는, ‘대학’, ‘무용연구소’, ‘학원’, ‘예술’, ‘예술가’, ‘무용가’, ‘스승’, ‘교수’, ‘제자’, ‘무용교육’, ‘수련’, ‘사사’, ‘실기’, ‘이론’, ‘전공’ 등의 단어와 이를 뜻하는 단어표현들이다. ‘대학, 무용연구소, 학원’ 등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무용교육기관의 형태이고, ‘예술, 예술가, 무용가’ 등의 단어는 무용 활동과 무용인을 규정하고 정체성을 드러낸다. ‘스승, 교수, 제자’ 등은 무용교육 현장에서의 관계를 규정하며, ‘무용교육, 수련, 사사’ 등은 무용교육 활동을, ‘실기, 이론, 전공’ 등



은 무용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가늠하는 단어들이다.

구술채록문 텍스트에서 확인된 무용교육 관련 어휘만으로 무용교육제도와 관련한 편향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들 어휘는 구술채록 상황에서 무용인의 발언 맥락과 의미에서 각기 다른 주장을 구성하게 된다. 구술채록에 참여한 무용인들은, 이들 어휘를 각각의 입장에 따라 다른 “어휘, 전제(preposition), 단어표현(wording), 문장구조, 표면적 양보(apparent concession), 반복에 의한 강조, 은유(metaphor), 선택(choice)과 배제(absence)”<sup>20)</sup>를 활용하여 발화하고, 서로 다른 함의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양측에서 공히 사용빈도가 높은 ‘무용교육’의 경우 양측이 사용하는 함의나 강조하는 내용이 다르다. 개인무용연구소 지지측은 ‘무용교육’을 공연자이자 창작자로서의 교육이나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교육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대학 무용과 지지측이 사용하는 ‘무용교육’은 대학무용을 비롯한 고급 교육과정과 무용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진로의 함의로 사용한다. 이처럼 동일한 단어의 다른 함의 또는 강조의 차이는 구술채록문의 주요 주장과 연결된다.

〈표 3〉 무용인 구술채록문 텍스트의 사용빈도가 높은 유사단어 중 사용 의미가 다른 사례  
(① ② ③ ④는 〈표 2〉에서 분류한 무용인 범주를 나타내는 번호임)

구 분	개인무용연구소 지지 ①(+②)	대학 무용과 지지 ③+④
사용빈도가 높은 유사단어 (용어의 중심 되는 의미가 다른 사례들)	스승, 선생님, 제자, 사사 - 사적 관계와 일화 강조	교사, 교수, 선생님, 학생, 제자 - 직위 역할 관계 - 무용연구소 출신의 경우 ‘스승’, ‘사사’ 사용 유사
	예술가, 무용가 - 창작자, 공연자 강조 - 공연과 창작 집중, 예술 자유	예술가, 무용가 - 공연자의 의미 강하나 동시에 교육자, 연구자 역할도 부각
	무용 교육 - 공연 및 창작 교육 - 출연경력 - 대학진학 보조	무용 교육 - 대학진학, 기관 및 제도 교육과정 - 무용인력 양성 규모 강조 - 대학 졸업 이후 진로

〈표 3〉은 이 중 개인무용연구소 지지와 대학무용과 지지 양측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다른 대표적 어휘 사례이다. 양측에서 공히 ‘예술가’, ‘무용가’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내포된 의미는 차이가 있었다. 개인 무용연구소 지지로 분류된 텍스트의 경우 ‘무용가’는 무용창작자와 공연자의 의미가 강조된다. 이는 개인 무용연구소 출신 무용가의 공연자이자 창작자로서의 유능함을 부각하고, 개인무용연구소 교육이 공연 활동에 유리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반면 대학 무용과 지지로 분류된 텍스트의 경우 ‘무용가’는 공연자이자 무용창작자로서의 의미를 포함하는 동시에 무용교육자이자 학자로서의 의미도 부각한다. 대학 무용과의 교육과정에도 무용공연 활동과 창작 기회가 주어지긴 하지만 이는 교육의 일환으로 수용한다.

〈표 4〉는 무용인 구술채록문 텍스트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와 어휘를 중심으로, 이행과정에 있던 두 무용교육제도에 대한 무용인 구술자의 주요 주장을 연결하여 명제화한 것이다. 사용빈도가 높은 어

20) 이기일, 성열관(2012), 학생인권은 교권에 대립하는가?: 교권 대 학생인권 프레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교육사 회학연구』 22(4), p.176.

회의 구성은 유사하나 각기 내포하는 의미와 강조의 차이에 따라 명제화된 담론은 다르다. 1960년대 초반 개인무용연구소를 지지하는 측은 ‘춤을 잘 추는 무용가’, ‘자유로운 창작 및 공연 참여’를, 대학의 무용과를 지지하는 측은 ‘학위 취득에 기반을 둔 안정적인 직업 진로’, ‘전문적, 체계적 교육과정’, ‘지속적 합리적인 무용가 양성’ 등을 강점으로 주장했다.

〈표 4〉 무용인 구술채록문에 나타난 개인무용연구소와 대학 무용과 관련 담론의 이항대립

구 분	개인무용연구소	대학 무용과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 및 어휘	스승, 제자, 사사 예술가 무용가 힘든 수련 창작, 공연	교사, 교수, 학생 예술가, 안무가 전공 체계적 이론, 아카데미즘
주요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무용연구소 출신의 무용인이 무용수련의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춤을 더 잘 춘다.</li> <li>* 개인무용연구소는 무용인에게 보다 많은 무용공연 기회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무용공연 경험, 무용가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에 유리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무용과는 교, 강사 등 안정적인 직업 진로를 위한 학위 및 인증 취득과정이다. (무용예술과 병행하는 취업 가능성)</li> <li>* 대학 무용과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무용교육으로 무용의 예술적, 학문적 발전을 도모한다.</li> <li>* 대학 무용과의 설립은 무용교육의 확대, 전문인으로서 무용가 양성 등에 기여한 합리적 제도이다.</li> </ul>
추출된 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춤을 잘 추는 무용가</li> <li>* 예술창작 및 공연 참여에 유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위 취득에 기반을 둔 안정적 직업진로</li> <li>* 전문적 체계적 교육과정</li> <li>* 지속적 합리적인 무용가 양성 제도</li> </ul>

긴밀한 사제관계와 고되고 오랜 수련기간, 춤 수련의 높은 집중도 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무용연구소는 ‘춤을 잘 추는 무용가’를 양성하는 제도임을 주장했다. 또한 무용공연기회에 접근과 창작활동 참여가 용이한 점을 부각함으로써 ‘예술창작 및 공연 참여’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대학 무용과의 교육 과정은 무용수련 외에도 학위 인증을 위한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용수련의 낮은 집중도가 약점으로 인식되었다. 개인무용연구소가 ‘춤을 잘 추는 무용가’나 ‘예술창작 및 공연 참여에 유리’함을 부각하는 반면 대학 무용과는 ‘학위 인증이 보장하는 안정적 직업’ 모색 가능성과 ‘전문적 체계적 교육과정’, ‘지속적인 무용가 양성체계’로서의 강점을 대항담론으로 부각했다. 대학 무용과는 전문적 체계적 교육과정을 앞세워 무용예술의 예술적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을 강조했다. 무용공연자로서의 실기역량과 무용공연 참여보다는 무용교육자로서의 자격 인증과 이론화로 차별화를 모색했다. 대학 무용과가 강점으로 내세운 세 담론은 무용교육의 근대적 지향과 결합하며 새 제도를 근대성이 확장된 제도로 수용하게 한다. 반면 개인무용연구소의 긴밀한 사제관계나 사적 공간에서의 무용수련, 무용교육 체계 및 방식이 개인 무용가에 따라 다른 점 등은 무용교육의 체계나 효율성 측면의 근대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수용되었다.

## 나. 담론적, 사회적 실천

한국 무용교육의 근대성 담론은 본 연구가 설정한 또 하나의 연구문제인 “개인무용연구소에서 대학 무용과로”의 이행과정에서 담론적 실천은 담론들을 어떻게 재구성하며, 담론과 권력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이다. <표 5>는 개별 담론의 맥락과 담론의 상호작용에 의한 재구성을 정리한 것이다. 무용교육 제도의 이행과정에서 대학 무용과의 도입 및 확산이 한국사회의 근대화 지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수용되었음을 확인하게 한다. 대학 무용과는 무용가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정과 졸업 이후 진로의 전망,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승인 측면에서 우위를 내세운다. 당시 대학 무용과의 교육과정은 체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대학 학위의 수여는 무용가로서의 무용계 입문인 동시에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승인이었다. 무용가 개인에게도 대학 무용과로의 진학은, 학위가 부여하는 다양한 진로기회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그런데 담론 ①에서 보듯이 두 제도에서 무용교육의 목적은, 공히 유능한 무용가, 곧 춤을 잘 추는 무용가의 양성에 두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무용과는 무용실기의 비중이 높은 교육과정을 편성했고, 그 경향은 현재에도 남아있다.<sup>21)</sup> 대학 무용과 지지층의 경우 당시 개인무용연구소에 비해 실기 수업과 연습량의 부족이 무용실행 능력의 부족과 연결되는 점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학 무용과는 연습량 부족에 대해 교과 외 수업과 학생 공연 발표회 운영으로 보완했다. 이런 점에서 대학 무용과도 무용교육의 주요 목적으로 ‘춤을 잘 추는 무용가 양성’을 중요하게 인식했으며, 춤 실기 수업의 상대적 부족 지적에 대응했음을 보여준다.

1960년대 대학 무용과의 개설로 ‘예술로서의 무용장르와 예술가로서의 무용가’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된다. 1960년대 본격화된 대학 무용과의 개설은 예술장르로서의 무용과 무용공연, 전문인으로서의 무용가를 주목하게 했다. 무용공연은 대학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전문 영역이자 고급예술의 하나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또한 무용가는 고등교육을 받은 예술창작자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얻을 수 있었다. 무용이 대학교육과정에 편입됨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무용은 과거와 다른 사회적 위상을 얻었다.<sup>22)</sup> 1970년대 이후 무용가로서의 진로는 학위 취득 유무와 관련성이 깊어지게 된다. 한국 사회 내 근대화된 교육제도인 대학교육이 확산되고, 무용 분야에서도 대학교육과정이 형성 및 확장됨에 따라 무용가의 학위는, 창작자로서나 공연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공적으로 입증하게 되었다. 대학 무용과의 개설 전에는 무용공연에 대한 평가는 개인 무용가의 명성과 연결되는 주요요인이었다. 그러나 대학교육과정의 개설과 학위를 취득한 무용가가 배출됨에 따라 무용공연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학위취득 유무도 예술가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이 되었다. 국립무용단과 국공립기관의 취업, 공연활동 참여, 고등교육과정 교육자로서의 임용에서 학위는 중요한 전거로 인정되었다. 무용교육제도로서 대학 무용과가 정착하고, 대학 교육과정을 거쳐 양성된 무용 분야 전문인력이 배출됨에 따라 1970년대 이후 대학 출신 무용가의 활동과 영향력이 커졌다. 무용교육제도와 관련한 담론적 실

21) 대학 무용과는 실기 능력 평가를 위주로 학생을 충원해왔다. 그 경향이 이어져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2008년 무용학 실기석사, 실기박사과정을 세계최초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타 대학의 경우에도 무용과는 실기자 위주의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왔다.

22) 1970년대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춤 현상이 공존하는 가운데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의 상징적 경계가 생성되고, 극장무용이 예술위계의 상층을 확보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윤지현(2014), 대중매체에 나타난 한국 무용의 상징적 경계 연구 -1970년대 『선데이서울』과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2.

〈표 5〉 1960, 1970년대 무용교육제도 사이의 경합과 담론적 실천

개인무용연구소 지지층 담론의 재구성과 맥락	담론	대학 무용과 지지층 담론의 재구성과 맥락
<p>무용수련 집중 사제관계의 중요성 강조</p> <p>대학 무용과 도입 초기 무용연구소 출신의 수련생은 대학 진학에 적극적이지 않았음 대학 진학 후에도 개인무용연구소의 사사관계 및 수련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음</p>	<p>① 춤을 잘 추는 무용가</p> <p>무용교육의 목적이 무용수 양성에 있다는 인식은 공유.</p>	<p>대학 교육과정의 이수와 병행해야함에 따라 무용 수련의 집중력 약화 인정</p> <p>실기 중심의 교육과정에도 무용수련의 절대량 부족을 취약점으로 인식 교육방식과 사제 관계는 개인무용연구소의 방식을 답습한다는 지적 있음</p>
<p>무용공연 제작과 공연활동 참여 기회 많음을 강조</p> <p>공연제작의 재정적 어려움과 학생(무용수) 수급 불안정</p>	<p>② 예술창작 및 공연 참여 유리</p>	<p>고급예술로서의 무용장르, 예술가로서의 무용가 위상 확보</p> <p>공연활동은 제한적으로 허용됨 1970년대 이후 대학 무용과의 무용공연 활동 확대</p>
<p>기성 무용가의 권위에 의존하는 무용가 승인과정은 과거, 전통의 산물로 인식</p> <p>학위 등 공인된 자격 부재로 진로 및 취업 제약</p>	<p>③ 학위 취득 등 근대적 자격 인증</p> <p>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공인된 자격증 취득의 중요성 부각</p>	<p>학위 취득의 유용성 확장 지도자 진출 확대</p> <p>대학 무용과의 학위는 무용 창작자, 교육자로서의 승인이자 상급 학위 취득을 위한 기초로 인식</p>
<p>무용교육 체계 및 전문성 부족 무용가와 무용의 낮은 사회적 위상 지속</p> <p>무용가 개인의 역량과 자질에 따라 다른 교육내용과 방법. (스승에 대한 회고에서 다른 무용가와의 차이나 우월성 강조 경향)</p>	<p>④ 전문적 체계적 교육과정</p>	<p>무용과 전공의 삼분할 시작 이론 수업에 대한 관심 확대</p> <p>교과과정 설계로 무용교육의 전문성 높아지고, 학문으로서 무용에 대한 학술 연구 시도됨.</p>
<p>대학진학 준비기관으로 기능 축소 및 위상 약화</p> <p>무용가로서의 직업적 경제적 전망의 불안정, 생활고</p>	<p>⑤ 지속적 합리적인 무용가 양성 제도</p>	<p>무용인과 무용공연의 안정적 재생산구조 확보</p> <p>사회적 승인을 획득한 무용가의 대량 생산체제로 수용됨</p>

천 과정은 1960년대 기존 제도인 개인무용연구소와 갓 도입된 제도인 대학 무용과 사이의 치열했던 무용계 내부 위계수립과 권력경쟁을 배경으로 한다. 그런데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두 무용교육제도의 경쟁은 대학 무용과의 역전과 압승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대학 무용과 출신의 무용인들로 무용계 구성원의 교체가 급속히 진행했고, 무용인 양성 및 무용공연 생산 전반을 장악하게 되었다.

1960, 70년대 경제개발과 수출산업 활성화, 도시화와 산업화 등을 중심으로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변화와 흐름을 감안한다면 무용교육과 창작 분야의 경우도 근대적 교육제도로 치부되는 대학 무용과의 설립과 확산은 사회근대화라는 주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제도였다. 무용교육제도에서 개인무용연구소로부터 대학 무용과로의 이행 및 무용계의 중심이동은 자연스러운 사회변화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인무용연구소와 대학 무용과라는 두 제도간 경합의 결과는 자명했다. 두 제도 사이의 담론 경쟁은 1970년대 초 대학 무용과의 전문화, 표준화, 체계화 등의 담론과 현실에서 대학 무용과 출신의 무용계 상층 안착 등으로 그 우위를 인정하게 됨에 따라 개인무용연구소 출신 무용가의 무용계 내부에서의 위상과 권위는 급격히 약화했다. 이후 두 제도는 제도간 경합보다는 하나의 무용교육체계 속에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곧 동일한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고, 공동으로 무용계의 사회적 외연확장을 도모하게 된다. 개인무용연구소는 무용학원으로 불리며 대학 무용과로의 진학을 위한 보조교육기관 또는 하위교육기관으로 1960년대에 비해 그 외연과 기능이 축소되었다.

개인무용연구소는 근대예술로서의 무용예술과 예술가로서의 무용가의 위상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 무용교육제도의 하나로 존재했다. 그럼에도 두 제도간 이행은, ‘전근대’와 ‘근대’ 담론경쟁의 구도 속에서 전개되었다. 근대화 이념의 영향 아래에서 무용계의 한정된 자원의 배분과 활용에 대한 결정과 정책은 대학 무용과와 그 출신을 중심으로 놓았으며, 대학 무용과의 학위를 무용가에 대한 사회적 승인으로 인정하게 했다. 또한 전에 없이 양산되는 양질의 무용인력 사이의 한정된 무용계 자원 선점을 위한 상징투쟁으로 담론경쟁은 그 성격이 변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근대’와 ‘근대’의 대립구도 속에서 대학 무용과에 의해 개인무용연구소의 기능과 영향력이 대체되는 과정은 ‘무용교육제도의 근대화’로 수용되었다.

‘춤 잘 추는 무용가’나 ‘예술창작과 공연활동 참여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개인무용연구소가 근대예술 담론 속의 ‘무용가’와 ‘무용예술’을 강조하며 생산한 담론이었다. 이에 대해 대학 무용과는 ‘학위 취득 등 근대적 자격 인증과 안정적 직업 진로’와 ‘전문적 체계적 교육과정’, ‘지속적 합리적 무용가 양성 제도’의 담론 등 보다 확장된 근대성을 부각하며 등장했다. 그런데 두 제도 사이의 근대성 담론경쟁의 실체는, ‘전근대’와 ‘근대’의 대립이기보다는 무용교육제도의 근대적 이행 과정에 등장한 근대적 기관 사이의 효율성 경쟁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신규 무용교육제도를 둘러싼 담론경쟁은, 대립의 관계로 해석되고, 구제도의 역할과 기능 보완이 아닌 구제도를 대체하는 신제도의 등장과 장악으로 수용되었다.

## IV. 나오며

본 연구는 1960, 1970년대의 개인무용연구소와 대학의 무용과에 대한 무용인들의 구술증언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근현대 무용사의 일단을 이해하고자 했다. 1960, 1970년대 무용교육제도의 이행과정을 경험했던 무용인의 구술채록문에 대한 담론 분석으로 무용교육제도의 근대화에 대한 성찰적 접근과 오늘의 우리 무용계에 대한 이해를 시도했다.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무용교육이 개인무용연구소 중심에서 대학 무용과 중심으로 이행한 것은 근대화라는 지배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무용사적 과정이었다고 본다. 당대 무용교육제도의 이행, 곧 구제도에 대한 신제도로의 대체과정은 무용교육의 근대성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인식되어왔다. 구제도인 개인무용연구소와 신제도인 대학 무용과의 제도간 경합은

‘전근대’와 ‘근대’의 담론 경쟁과 겹쳐졌으며, 예견된 ‘근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근대예술의 특징 중 하나는 예술의 원천이자 가치를 ‘개인’ 예술가의 작업과 성과에서 찾는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개인무용연구소는 근대예술로서의 무용과 예술가로서의 무용가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둔 근대적 교육기관의 하나이다. 예술가로서 개인무용가의 명망을 기반으로 조성된 교육기관이며, 무용예술의 실행주체였기 때문이다. 1940년대 이후 근대 무용교육을 담당해오던 개인무용연구소는 1960년대 초반 대학 무용과의 설립을 계기로 퇴조하고, 대학 무용과로 그 역할과 기능은 이행한다. 개인무용연구소에 비해 대학 무용과는 무용교육 분야의 근대성이 진전된 제도로 인식되었다. 무용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체계적 관리, 학위 및 인증제도 도입, 안정적 재생산 체계로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이들 두 제도를 중심으로 기존 제도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담론과 새로운 제도 도입이 무용교육의 근대성을 확대한다는 대항담론이 경쟁했다. 개인무용연구소와 대학 무용과는 공히 근대적 교육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와 근대’의 대립프레임 속에 신규제도의 이행을 겪었다. 한국사회의 근대화 지향 속에서 ‘전근대적’ 개인무용연구소의 퇴장과 ‘근대적’ 대학 무용과의 확산은 당대 사회의 자연스런 흐름이자 변화였다.

여기에서 본 글의 모두에서 제기했던 “한국의 무용교육제도는 근대적 이행에 성공했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1960, 1970년대 국내 무용교육제도가 개인무용연구소에서 대학 무용과로의 무용교육 및 무용공연 생산의 중심 기관이 이행한 과정을 근대성의 확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개인무용연구소를 ‘전근대적’ 교육기관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것처럼 대학 무용과를 ‘근대성의 확대’라 단언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무용인의 구술채록문에 대한 담론분석으로 추출한 담론과 담론의 재구성 과정의 맥락은 무용교육제도의 근대적 이행이 무용교육의 근대성 확대라는 믿음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연시해왔던 한국 무용교육제도의 근대성 확대가, 실은 1960, 1970년대 한국사회의 중심의제이자 사회적 지향이었던 근대화의 이념적 작동 사례일 뿐 실제적 진화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무용교육의 근대화라는 믿음과 달리 개인무용연구소에서 대학 무용과로의 무용교육제도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무용교육 분야의 근대적 합리성이 실질적으로 증대되지 못했다는 우려이다. 근대적 교육기관의 정착과 확대만으로 무용교육 및 공연 생산의 근대화를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근대적 무용교육과 무용공연 생산이라 할 도제적 관행과 불합리한 행위자 관계가 개인무용연구소에 이어 대학 무용과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용계의 전근대적 관행과 관계가 약화 또는 개선되기보다 은폐된 형태로 온존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 참고문헌

- 김경용(1994).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기호의 우리, 우리의 기호』. 서울: 민음사.
- 윤택림(2004).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서울: 아르케.
- Bourdieu, P.(1991). 『언어와 상징권력』. 김현경(역). 서울: 나남. 2014.
- Fairclough, N.(1995). 『대중매체 담화 분석』. 이원표(역). 서울: 한국문화사. 2004.
- \_\_\_\_\_ (2001). *Language and Power*(2nd edition). London: Longman.
- Fairclough, N., Wodak, R.(1997). Critical Discourse Analysis, Dijk, T. A. V.(Ed). *Discourse as Social Interaction : A multidisciplinary introduction*. London: SAGE.
- Wodak, R., Meyer, M. (2001).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ondon: SAGE.
- 김영욱, 함승경(2014). 금연과 흡연의 담론 경쟁- 비판적 담론분석(CDA)의 적용. 『한국언론학보』, 58(5): 333-361.
- 윤택림(1994). 기억에서 역사로-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5: 273-294.
- 윤지현, 김재리(2008). 공연 팸플릿에 나타난 한국의 무용 장(Field): 부르디외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무용기록학회지』, 15: 93-120.
- 윤지현(2014). 대중매체에 나타난 한국 무용의 상징적 경계 연구-1970년대 『선데이서울』과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2(3): 133-154.
- 이기일, 성열관(2012). 학생인권은 교권에 대립하는가?: 교권 대 학생인권 프레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2(4): 171-197.
- 최해리(2011). 무용구술사를 통한 새로운 한국근현대무용사 쓰기의 가능성 모색: 국립예술자료원의 2008~2009년도 무용구술채록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Dijk, T. A. V.(1993). Principle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Discourse & Society*, 4: 249-283.
- 아르코예술자료원(2003~2016).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무용분야 구술채록 자료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한국예술디지털 아카이브 구술채록  
(<http://www.daarts.or.kr/gusool-artist>, 2016. 1. 10. ~ 2017. 10. 20.)

논문투고일 2017. 11. 15

심사일 2017. 11. 29

심사완료일 2017. 12. 7

## The Institutional Transition of Dance Education in the 1960, 70s' Korea

- from Private Dance Schools to Dance Departments in Universities

**Yoon, Jihyun**

Lecture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e study attempted to describe the institutional transition of dance education which had occurred in the 1960, 70s' Korea. Using Fairclough'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method, it approached the transitional process as a discursive struggles between two types of institution: private dance schools and dance departments in universities. Though both appeared in the modern era, the later was assumed as a modernized institution, but the former was not. The dance department in university was regarded as modern, but at the same time it claimed the ruling ideology, modernization.

The analysis of the discourse of the time identified five thematic discourses. Among these, two discourses, 'well trained dancers' and 'freedom for dance creation' were for the private dance schools; and three discourses, 'obtainment of degrees and certifications', 'specialized and systemic curriculum' and 'sustainable and reasonal reproducing system in the field of dance as an art' were for the universities' dance departments.

Keywords: Oral history(구술사), Modernization(근대화), Critical discourse analysis(비판적 담론분석), Private dance schools(개인무용연구소), Dance departments in universities(대학무용과)